| 현불 논단 |

‘STOP’ 불교 왜곡 보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전환시대 언론도 위기 맞아
언론향한 신뢰·인식 바닥으로 추락
저널리즘 품질 향상 위한 반성 요구

승려대회 전후 언론 보도행태 주목
‘기득권’ ‘실력행사’ 등 부정적 보도
균형잃은 보도에 불교이미지 실추

공정성·객관성·중립성 잃어선 안돼
불교 언론들 위상·역량 상승도 중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으로부터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불교계의 이슈는 사찰 문화재 입장료와 종교편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찰이 징수하는 입장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표출되었다. 사실을 왜곡한 당사자를 포함한 집권 여당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불교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정부의 종교편향성 문제까지 들추어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승려대회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가 소위 불심 달래기에 나섰고, 표면적으로나마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은 승려대회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실력행사”라고 매도하거나, 불교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폄훼하는 일부 취재원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는 등 불교에 대한 불공정 보도를 양산하였다. 이 같은 일부 언론의 불교 보도 태도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불교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했다. 언론의 균형 잃은 불교 보도 태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불교 보도 및 저널리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언론의 노력과 자기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언론계는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1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합일간지의 매출은 물론이고, 종사자 수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언론인에 대한 인식이 끝없이 추락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어려운 공채시험에 합격한 젊은 기자들의 언론계 탈출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젊은 기자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만든 배경에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언론사의 조직문화, 언론의 사회적 평판과 영향력의 하락, 그리고 미래 비전의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의 훼손이 핵심 요인은 아닌지 언론계는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종교보도에서도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이는 언론이 정보를 수집, 처리,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을 세우고 특별한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원칙은 첫째 중립성 유지의 원칙이다. 즉 취재 대상에 대해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편부당의 원칙으로 논쟁 가운데서 누구의 편을 들거나 편견을 보여서도 안 된다. 세 번째로 객관성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정확해야 하며 여타의 진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이다.

언론에 있어서 종교는 껄끄러운 보도 대상일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 후 종교계의 집단 반발이나 물리적 대응이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 차원에서 언론은 당연히 종교의 일탈행위나 종교가 사회의 건전한 풍속 또는 도덕률을 해치는 사례를 보도해야 한다. 개별 종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신문이 종교에 따라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보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교를 그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보도 태도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언론의 편향된 불교 보도 사태를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불교 언론인 개인의 주도적 노력, 경영진의 동참과 투자, 언론계 외부의 노력을 통해 전문 불교 언론인 양성에 주목하여, 불교 언론계의 역량과 위상을 키워가야 한다. 이것이 언론으로부터 불교를 지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언론을 구하는 길이다.

社說

러시아, 이젠 전쟁을 멈춰라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사망한 우크라이나의 한 6세 소녀 사진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다. 소녀를 안은 아버지의 얼굴과 손은 피로 물들어있었고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을 받는 아이의 몸은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곧장 응급 수술을 했지만 소녀는 결국 숨을 거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이어 민간인 주거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 1600명이 넘는다. 주요 대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다.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 중동 등에서 ‘전쟁 반대’ 등의 팻말을 내걸고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과 세계 종교계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국제사회의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전쟁은 구시대적이다. 비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3월 2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전국 사찰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통해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평화 염원 함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간인 살상과 전쟁을 중단해 전쟁 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템플스테이 20주년에 부쳐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운영 2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3월 2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치유를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음 더하기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해외 홍보행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대중들의 편견부터 체험관광 상품으로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템플스테이까지 안팎으로 위협 요소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열린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에서도 템플스테이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 바 있다. 운영사찰들도 개방적인 사고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동백꽃 소식

남녘에서 동백꽃이 피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반질반질 초록 잎이 얼어도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 그 숨결은 애달프고 선연하다.

중국 옥룡사 마당의 땅딸보 동백나무는 2만 송이 꽃을 피워 제 몸을 홀로 가누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남쪽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동백꽃은 한 송이 한 송이 제각기 피어나고 떨어진다.

또록또록 피어나는 그 동백꽃은 곱고 단아하다. 요즈음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화려한 동백꽃과는 울림이 다르다. 커다란 꽃잎으로 겹겹이 치장한 현대판 동백꽃은 알렉산더 듀마가 쓴 〈동백꽃 여인〉의 ‘춘희(春姬)’를 떠올리게 한다. 춘희는 귀족 남자를 사랑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고급 창녀다.

나를 부르는 동백(冬柏)은 춘희처럼 봄바람에 춤을 추는 춘백(春栢)이 아니다. 춘백은 따뜻한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겨울에는 동면한다. 하지만 동백은 나비도 날아오지 않는 겨울에 동박새를 기다려 꽃을 피운다. 춘백(春栢)은 옥룡사 동백처럼



그림 · 최주현

수 백송이 꽃을 피워 세인을 유혹하지만, 동백(冬柏)은 설중송백(雪中松柏)으로 흰 눈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고 청청하다.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고고한 마음으로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그 고통 오죽했으면 그렇게 작은 홑겹 꽃으로 솟구쳤을까. 유난히도 붉은 꽃잎에는 사랑을 담고.

동백꽃은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낙화한다. 모든 꽃들은 생기 잃어 추해지면 땅으로 떨어지지만 동백은 시들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땅을 붉게 물들인 동백꽃은 또 다른 처연한 황홀감을 안겨준다. 밤새 수북이 떨어진 동백꽃 만다라에 새벽빛이 비추면 가슴 아리지만 솔 향 같은 숭고함이 피어오른다. 진달래는 지니까 즈려밟고 갈 수 있을지라도 동백꽃은 밟고 갈 수가 없다.

소혜가 왕양명에게 도(道)가 무엇이냐고 묻자 주야지도(晝夜之道)라고 말했다. 김흥호 선생님은 낮과 밤을 햇님, 달님으로 해석한다. 생(生)이 햇님, 사(死)가 달님이라는 은유다. 나무 위 동백꽃이 햇님이라면, 땅에 떨어진 동백꽃은 달님이다. 햇님 뜨는 낮과 달님 뜨는 밤이 하루이고, 생사(生死)가 하루이다. 이 하루가 영원이라서 운문선사는 일일호일(日日好日)이라 하셨을까?

돌산도 향일암의 해수관음상을 에워싼 동백은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바라보며 붉은 꽃송이를 피우고 있겠지….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